

체크무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격자무늬는 가로, 세로의 직선이 같은 간격으로 문살처럼 직각으로 교차해 나가는 우리 나라에서는 흔히 문살무늬 또는 정자가 무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창살이 짜여진 창호를 정자살창호라고 한다. 이것이 45정도로 비스듬하게 놓였을 때는 빗살이라고 한다. 또한 넓고 좁은 선을 여러 색으로 가로 세로로 엮어 놓을 것을 체크 무늬라고 한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가계와 관련된 무늬로 색조와 형태에 따라 타탄 체크, 워드 플레인, 그렌 체크 등 다양하다. 체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마드라스 체크 셔츠는 화려하면서도 뽀뽀함이 있어 좋은 것이다. 그러한 매력은 김영체크와는 전혀 다르다. 마드라스 체크의 원산지는 인도이다. 그것의 오리지널은 수방, 수직의 초목염에 의한 선염직물이다. 물론 면직물이다. 오늘날에는 화학염료를 사용하고 있어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던 색상을 느낄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김영체크의 색상은 선명하고 맑다. 무늬도 단순하다. 김영체크의 장점은 심플함이다. 마드라스 체크의 격자무늬는 여러 종류의 다른 색상의 가는 줄무늬라던가 굵은 줄무늬가 가로, 세로로 복잡하게 조합되어 있다. 김영 체크의 격자 무늬는 단일 색상의 동일한 폭의 줄무늬가 가로, 세로로 단조롭게 조합되어 있다. 김영 체크의 겨자 무늬는 단일 색상의 동일한 폭의 줄무늬가 가로, 세로로 단조롭게 조합되어 있다. 마드라스 체크 셔츠라던가 버뮤다쇼트 등의 분위기는 아이비 스타일(ivy style, 미국 동부 상류 계급의 복장)에 뒤지지 않는다. 이것을 남성복으로 한다면 젊은 여자의 캐주얼한 옷으로 김영 체크는 효과적이다.

면 선염직물 옷감으로는 모직물의 색상 무늬를 모방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를 출생지로 하는 타탄체크의 무늬물이다. 영욕 브랜드의 대표적인 무늬물인 그렌체크도 자주 사용되고있고 멜란지를 사용한다던가 네프사를 사용한 것도 하나의 예이다. 면 선염직물 체크무늬에는 모직물에는 없

는 캐주얼한 감이 있다.

쇼핑백이 무늬로 타탄체크를 부활시킨 백화점이 있을 정도로 타탄체크는 대중적이다. 타탄체크의 바탕색으로는 빨강, 녹색, 흰색, 그레이, 황색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 위에 격자의 색상 무늬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대조적인 것으로 블랙워치가 있다. 전체가 거무스름한 느낌의 녹색바탕에 청과 흑색의 격자무늬다. 면 재킷의 빗깁과 무늬가 되기도 하고 여학생의 스커트 감의 빗깁과 무늬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늬의 오리진은 영국 육군의 스코틀랜드 고지 연대의 군복이다. 타탄체크는 2/2 우능의 모직물이다. 2/2라고 함은 위사 1올 위에 경사 2올이 올라가고 인접한 경사 2올은 위사의 밑으로 배치하여 조작한 능직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투업 투다운이라고 읽기도 한다. 타탄체크는 바르게는 타탄 플레이드 또는 타탄 프랫드라 한다. 체크라 함은 격자를 구성하는 줄무늬의 폭이 넓고 바탕이 적은 것을 가리키고 이와는 반대로 바탕이 넓게 나타나고 가는 격자의 것이 플레이드라고 한다. 그렇지만 서울, 동경, 뉴욕에서도 타탄 체크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타탄 플레이드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치마와 비슷한 킬트(kilt)와 더불어 어깨에 걸친 플레이드(tartan plaid)는 스코틀랜드를 인상 지우는 전통의상으로 그 종류가 2,500여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패턴이나 색상은 각 부족 clan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그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다. 타탄을 크게 나누면 사냥 등 착용하는 녹색 계통의 타탄과 공식적인 식장이나 파티 등에서 입는 적색 계통의 화려한 타탄으로 나뉘어진다. 스코틀랜드의 토산품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은 타탄을 이용한 킬트, 모자, 스커트 등이다.

1) 체크무늬(check)

바둑판 무늬, 모양이 크고 세가지 이상의 색실을 사용한 다채로운 바둑판 무늬를 플레이드(plaid)라 하는데 대하여 검정색과 흰색, 갈색과 흰색 드을 원

칙으로 하여 2색 또는 3색의 비교적 모양이 작은 것을 체크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원래 직조공정에서 생긴 무늬를 뜻하나 날염으로 나타낸 것도 포함하여 체크라고 한다. 그 종류도 수 백 가지가 되지만 유행의 기록을 타지 않는 고전적인 체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윈도우패인(window pane)

창틀과 비슷한 기다린 무늬로, 큰 것은 1개 10cm 정도 되는 것도 있으나 보통 3~4cm 전후의 것이 애용되며, 주로 여성들이 즐겨 찾는 무늬이다.

② 건클럽 체크(gun club check)

1874년 미국의 건클럽이 채택한 무늬로서 작고 짙은 체크 위에 옅은 색의 체크를 +자로 겹치게 한 것으로, 갈색의 농담에 의한 것과 흰 바탕에 검은 실과 붉은 실을 사용한 것이 인기가 있다. 원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무늬이다.

③ 글렌어콰트 체크(glenurquart check)

글렌어콰트 체크의 약칭으로, 스코틀랜드의 엘릭강 옆 글렌어콰트 근교에서 제작된 체크이다. 작은 무늬에 약간 큰 무늬를 섞어서 짙은 무늬로 본래 청색과 백색의 배색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검정과 백색이 많이 쓰인다.

④ 셰퍼드 체크(shepherd's check)

스코틀랜드의 양치기들이 애용하던 무늬로 사방 1cm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체크이며, 백색과 검정이 기본이나 청색과 백색, 갈색과 백색의 배색도 괜찮다.

⑤ 하운드 투스 체크(hound tooth check)

사냥개의 이빨처럼 보이는 무늬이다. 프랑스에서는 피에 들 폴(pied de poule) 또는 피에 드 코크(pied de coq)라고 한다. 무늬의 크기는 4~5cm 정도로 검정에 배색을 배합한 것이 많다.

⑥ 바스켓 체크(basket check)

가로, 세로의 줄을 교대로 들쭉날쭉하게 짤 무늬이다.

⑦ 핀 체크(pin check)

핀헤드체크, 니트체크라고도 한다. 경사와 위사를 모두 2색으로 한 줄 건너서 배합시킨 무늬이다.

⑧ 블록체크(block check)

가로, 세로 너비가 같은 무늬이다.

⑨ 타탄체크(tartan check)

정확하게 타탄플래드(tartan plaid)이다. 스코틀랜드의 고지인(highlander)들이 어깨걸이(plaid)로 쓰던 다채로운 무늬로, 현재는 어린이와 여성의 옷 또는 외투의 안감으로 사용된다.

2) 버뮤다쇼트(Bermuda shorts)

무릎이 보일 정도로 길이가 짧고 품이 좁은 바지로서 명칭은 미국의 피서지인 버뮤다제도의 원주민들이 착용한 복장에서 연유한다. 스포츠와 리조트용으로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950년대에 유행된 후 점차 여름옷으로 정착되었다. 바지의 부리모양이 훌쩍하고 대개 제천으로 된 웨이스트 밴드가 달려 있다.

3) 마드라스(madras)

인도의 마드라스 지방에서 수직으로 짠 무명 천으로써 인디언 마드라스라고도 한다. 가볍고 아름다운 평직 무명인데, 보통 줄무늬로 된 것이 많고 체크(check) 무늬로 된 것도 있다. 이것은 처음에 뱃사람 머리에 쓰는 천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다. 드레스, 블라우스, 에이프런, 스포츠웨어 등의 재료로 쓰이는데, 색채가 매우 아름다운 것도 있다.

4) 타탄(tartan)

색 창살무늬 및 그런 무늬의 직물을 타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각 씨족(clan)이 제각기 독특한 문장 또는 장식으로서 사용했는데, 의례, 수렵, 전쟁 등에서 특수한 타탄을 정해 놓고 복장에 붙이는 등 16세기 무렵에는 수많은 클란(clan)타탄이 있었다. 그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타탄체크는 이들 클란타탄이 스코틀랜드의 명문가에 의해 전해오는 것을 모아 발표한 것으로, 각국 디자이너들이 흥미를 느껴 일반 옷감에 이용한 것이다. 색상의 조합과 창살무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있게 짤 수 있으며 색채도 아름다워 근래 크게 유행하고 있다.

본래 타탄은 스코틀랜드 양모를 사용하여 방모사나 소모사를 만들고 염색해서 짠 모직물이었으나, 최근에는 화학섬유사나 면사를 사용하여 짜는 경우가 많아 여성복감, 아동복감, 안감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인의 민속의 상인 킬트(kilt : 남자가 입는 주름이 많이 잡힌 스커트 모양의 의복)에 타탄체크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를 본 떠 여성 스커트에도 타탄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창살무늬와 주름을 조합시켜 시각적인 효과를 꾀하고 스커트의 타탄에 사용된 빛깔 중에서 스웨터, 블라우스 등의 색을 결정하고 디자인이 연구되는 등 타탄체크는 일반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다.